

## 마태오 복음서 14장

헤로데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다(마르 6,14-16; 루카 9,7-9)

- 1 그때에 헤로데 영주가<sup>1)</sup>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 2 시종들에게, “그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다. 그가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난 것이다. 그러니 그에게서 그런 기적의 힘이 일어나지.” 하고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와(3-12절) 예수님을 죽였다가 되살아난 요한이라고 하는 헤로데의 말로써(2절), 마태오는 예수님의 부활과 죽음을 예고한다고 할 수 있다.<sup>2)</sup>

세례자 요한의 죽음(마르 6,17-29)

- 3 헤로데는 자기 동생 필리포스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sup>3)</sup> 요한을 붙잡아 묶어 감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 4 요한이 헤로데에게 “그 여자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sup>4)</sup> 하고 여러 차례 말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혼인은 율법에서 금지된다.<sup>5)</sup> 헤로데 안티파스는 배다른 형제의 딸이면서 동시에 이복형제의 아내인 헤로디아와 혼인하려고 첫째 부인 곧 나바태아 왕국의 임금 아레타스의 딸을 버린다.

- 5 헤로데는 요한을 죽이려고 하였으나 군중이 두려웠다. 그들이 요한을 예언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 6 그런데 마침 헤로데가 생일을 맞이하자, 헤로디아의 딸이 손님들 앞에서 춤을 추어 그를 즐겁게 해 주었다.
- 7 그래서 헤로데는 그 소녀에게, 무엇이든 청하는 대로 주겠다고 맹세하며 약속하였다.
- 8 그러자 소녀는 자기 어머니가 부추기는 대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

1) 대(大) 헤로데의 아들 헤로데 안티파스를 말한다. 이 헤로데는 아버지가 죽은 뒤에 갈릴레아와 페래아를 이어받는다(주석 성경, 마태오 복음서, 108쪽, 각주1).

2) 위, 109쪽, 각주 3 참조.

3) 대(大) 헤로데는 아내를 열 명 거느렸다. 헤로디아는 자기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헤로데 필리포스와 혼인하였다가, 나중에 남편의 이복형인 헤로데 안티파스와 불법적으로 혼인한다. 이들 사이에 난 살로메도 뒤에 자기 삼촌인 또 다른 헤로데 필리포스 영주와 혼인한다(위, 각주 4).

4) 레위 18,16 : 네 형제의 아내의 치부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네 형제의 치부이다.

5) 레위 20,21 : 어떤 사람이 자기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그것은 불결한 짓이다. 그가 제 형제의 치부를 드러낸 것이므로, 그들은 자손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리 가져다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9 임금은 괴로웠지만, 맹세까지 하였고 또 손님들 앞이어서 그렇게 해 주라고 명령하고,

10 사람을 보내어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게 하였다.

11 그리고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다가 소녀에게 주게 하자,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가져갔다.

1) 헤로데는 자기 양심에 비추어 옳은 일을 하기보다는 사람들의 말과 여론을 더 두려워하였다.

2) 헤로데는 자기 허세에 자기가 넘어진다.

3) 헤로데는 공정과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악을 행한다. 이처럼 부패한 권력은 엄청난 죄악을 가져온다.

12 요한의 제자들은 가서 그의 주검을 거두어 장사 지내고, 예수님께 가서 알렸다.

요한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는 한동안 중첩된다. 요한 자신이나 그의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요한이 죽은 뒤에는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을 것이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의 시대가 끝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

**오천 명을 먹이시다**(마르 6,30-44; 루카 9,10-17; 요한 6,1-14)

13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서는 거기에서 배를 타시고 따로 외딴곳으로 물러가셨다. 그러나 여러 고을에서 그 소문을 듣고 군중이 육로로 그분을 따라나섰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례자 요한의 죽음, 곧 당신의 운명을 예고하는 죽음에 관한 소식을 들으시고 ‘물러가신다.’ 수난의 시간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sup>6)</sup>

14 예수님께서서는 배에서 내리시어 많은 군중을 보시고 가엾은 마음이 드시어, 그들 가운데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 주셨다.

예수님의 측은지심(惻隱之心)은 사람들을 향한 사랑으로 나타난다.

15 저녁때가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여기는 외딴곳이고 시간도 이미 지났습니다. 그러니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마을로 가서 스스로 먹을거리를 사게 하십시오.”

---

6) 앞, 각주 10 참조.

- 1) ‘저녁때’는 하루의 일과가 끝났음을. ‘외딴곳’은 정상적인 활동 영역을 벗어났음을 뜻한다.
- 2) 군중들은 외딴곳이고 이미 늦은 시간이 되었는데도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는다. 예수님을 향한 갈증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인간적인 한계만을 본다.

**16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르시니,**

**17 제자들이 “저희는 여기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밖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18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리 가져오너라.” 하시고는,**

- 1)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낼 필요가 없다.” 하시며, 당신께서 하실 일을 이미 결심하신다. 그리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며 제자들을 동참시키신다.
- 2)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사람들은 이것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지만,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그 부족함을 풍족함으로 채워실 수 있는 분이시다.

**19 군중에게 풀밭에 자리를 잡으라고 지시하셨다.<sup>7)</sup> 그리고 빵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찬미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그것을 군중에게 나누어 주었다.**

- 1) 제자들의 협조(봉헌)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하느님을 찬미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주시니’ 곧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완성하신다.
- 2) 성체성사의 예표이다.

**20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광주리에 가득 차다.**

**21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들 외에 남자만도 오천 명가량이었다.**

- 1) ‘배불리 먹다.’라는 표현은<sup>8)</sup> 하느님께서 광야에서 당신 백성에게 마련해 주신<sup>9)</sup>

7) ‘자리를 잡다.’는 본디 바닥이나 긴 위자 위에 팔이나 쿠션에 기대어 옆으로 길게 눕는 것을 가리키는 데, 이것이 당시에 식사하는 일반적인 자세였다(위, 110쪽, 각주 15).

8) 탈출 16,12 :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희 하느님을 알게 될 것이다.’”

9) 탈출 16,4 :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 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만나를 상기시킨다.<sup>10)</sup>

- 2) 남는다는 것은 엘리사의 기적에도 나온다.<sup>11)</sup> 그리고 이 예언자의 시종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것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열둘’은 예수님/게서 선택하시고 또 굶주린 군중에게 빵을 주라고 분부하신 제자들의 수를 상기시키는 것일 수도 있다.<sup>12)</sup>

## **물 위를 걸으시다(마르 6,45-52; 요한 6,16-21)**

### **22 예수님께서서는 곧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당신께서는 군중을 돌려보내셨다.**

빵의 기적을 체험한 제자들과 군중은 인간적으로 예수님께 열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시기 위해 제자들을 재촉하시어 떠나보내신 뒤 마찬가지로 군중도 돌려보내시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23 군중을 돌려보내신 뒤, 예수님께서서는 따로 기도하시려고 산에 오르셨다. 그리고 저녁때가 되었는데도 혼자 거기에 계셨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심은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하심이다.

### **24 배는 이미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져 있었는데,<sup>13)</sup> 마침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리고 있었다.**

### **25 예수님께서서는 새벽에 호수 위를 걸으시어 그들 쪽으로 가셨다.**

- 1) ‘새벽’은 밤 사경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룻밤을 오경까지 다섯으로 나누었는데, 유대인들은 본디 셋으로, 로마인들은 넷으로 나누었다. 여기 ‘사경은 오전 세시부터 여섯 시까지이다.’<sup>14)</sup>
- 2) 물에서 여러 스타디온 떨어지고 더구나 맞바람이 불어 파도에 시달림은, 다른

---

10) 앞, 각주 17.

시편 78,19 : 그들이 실컷 먹고 배불렀으니 그들의 욕심을 채워 주신 것이다.

11) 2열왕 4,42-44 :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 왔다. 그는 만물로 만든 보리 빵 스무 개와 햇곡식 이삭을 자루에 담아, 하느님의 사람에게 가져왔다. 엘리사는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하고 일렀다. 그러나 그의 시종은 “이것을 어떻게 백 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엘리사가 다시 말하였다. “이 군중이 먹도록 나누어 주어라. 주님께서 이들이 먹고도 남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리하여 그것을 사람들에게 내놓으니, 과연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먹고도 남았다.

12) 앞, 각주 18.

13) 한 스타디온은 185미터이고, 이 갈릴래아 호수는 너비가 12킬로미터에 달한다(위, 111쪽, 각주 20.)

14) 위, 각주 21.

사람의 도움이 거의 불가능한 역경에 처했음을 뜻한다.

**26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으시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유령이다!” 하며 두려워 소리를 질러 댔다.**

**27 예수님께서서는 곧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 1)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 부딪친 제자들에게 물 위를 걸어 다가오심은 당신이 초월적인 존재 곧 하느님이심을 드러내시는 것이다. 하지만 인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은 아직 신앙의 눈이 열려있지 않았기에,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다.
- 2)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의 눈을 열어 주시며,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신다.

**28 그러자 베드로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시거든 저더러 물 위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29 예수님께서 “오너라.” 하시자,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어 예수님께 갔다.**

**30 그러나 거센 바람을 보고서는 그만 두려워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들기 시작하자, “주님, 저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소리를 질렀다.**

**31 예수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32 그러고 나서 그들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다.**

- 1) 베드로는 믿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다.
- 2) 주님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어려움이나 고통이 닥치면 좌절하는 약하기 약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 심지어 원망하고 의심하기도 한다.
- 3) 베드로의 외침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절박한 기도이다.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심에 안정과 평온 곧 평화가 찾아온다.

**33 그러자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분께 엎드려 절하며, “스승님은 참으로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하고 말하였다.<sup>15)</sup>**

예수님께서서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을 깊은 물에서 구해내심으로써<sup>16)</sup> 당신이 하느

---

15) 마르 14,61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하고 물었다.

루카 22,70 : 그러자 모두 “그렇다면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이라는 말이오?”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서 “내가 그러하다고 너희가 말하고 있다.” 하시자,

요한 1,49 : 그러자 나타나엘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스승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 이 스라엘의 임금님이십니다.”

님의 아드님이심을 드러내시고, 베드로는 비로소 눈이 열려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고 신앙고백을 한다. 이 신앙고백은 바로 교회의 초석이 되는 고백이 된다.

#### **겐네사렛에서 병자들을 고치시다(마르 6,53-56)**

**34 그들은 호수를 건너 겐네사렛 땅에 이르렀다.<sup>17)</sup>**

**35 그러자 그곳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모든 지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어, 병든 이들을 모두 그분께 데려왔다.**

**36 그리고 그 옷자락 술에 그들이 손이라도 대게 해 주십사고 청하였다. 과연 그것에 손을 댄 사람마다 구원을 받았다.**

1)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의 믿음은 아주 단순하다. 그저 손이라도 대면 낳을 것이라는 순박한 믿음이다.

2) 구원은 하느님만이 베푸시는 은총이다.

---

16) 시편 18,17 : 그분께서 높은 데에서 손을 뻗쳐 나를 붙잡으시고 깊은 물에서 나를 끌어내셨네.  
이사 43,2 : 내가 물 한가운대를 지난다 해도 나 너와 함께 있고 강을 지난다 해도 너를 덮치지 않게 하리라. 내가 불 한가운대를 걷는다 해도 너는 타지 않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17) 겐네사렛은 갈릴래아 호수 북서쪽 물가에 있던 마을 이름인데, 이 호수 서쪽, 가파르나움 남쪽으로 땅이 비옥하고 사람이 많이 살던 고장을 가리키기도 한다(앞, 각주 27).